

페트병 재활용률 80% 달성 목표

협회 활성화 주력



정 황

(사)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회장

페트병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것은 1979년에 처음 간장용 용기로 사용하면서 시작된다.

그동안 페트병은 가벼워 휴대 및 취급이 간편하고 외관이 미려하며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라는 점을 소비자로부터 인정받아 일상생활에서 비약적으로 사용량이 확대되어 현재는 청량음료 용기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 국내 연간 페트병 사용량은 1.5리터 병을 기준으로 약 25억3천4백만개에 달하고 있으나, 2002년도 까지만 해도 페트병 발생량 중 45%만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물로 방치되어 자연환경훼손과 매립 및 소각에 따른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함과 동시에 귀중한 석유자원의 낭비라는 문제점을 야기한 바 있다.

(사)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는 민법 제34조 및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, 재활용사업자 등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2002년 4월 설립됐다. 2003년 1월 환경부로부터 페트병과 관련된 생산자의 재활용사업공제업무를 위임받아 공제사업과 더불어 재활용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, 대국민홍보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이다.

그동안 협회는 설립과 동시에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등에 매진한 결과 2005년도 재활용률을 71%까지 향상시켜, 선진국인 일본 62%, 미국 21%, 유럽연합의 31%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도록 하였다.



▲ 정황 신임회장을 비롯한 (사)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임원

지난 8월 (사)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는 이광훈 전 회장의 퇴임으로 새로운 협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재정비를 다졌다.

(사)한국페트병자원순환협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정황 회장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출신으로 지난 76년 롯데제과, 83년 롯데칠성에서 근무한 뒤 97년 롯데칠성 이사, 2004년 롯데칠성 전무 등을 거쳐 2005년 코리아세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롯데칠성음료(주)의 대표이사이다. 정 회장은 “제3대 회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”며 “협회 활성화를 위해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”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. 그는 “최근 페트병을 포함해 각종 포장용기에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완벽한 수거와 재활용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

정부,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 하에 수

집, 운반, 재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연구·개발하겠다는 것. 그 일환으로 앞으로 협회는 재활용율을 현재 71.7%에서 2013년까지 80%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재활용기술도 현재 섬유중심에서 건설, 생필품, 자동차, 항공기 자재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, 고부가 가치 재활용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. 또한 페트병 재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.

정 회장은 “회원과 함께하는 협회로 만들어 회원사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, 기존의 위원회를 활성화하여, 회원들의 의견이 협회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

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“재활용체계의 개선, 기술개발, 홍보활동을 통한 21세기 환경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협회가 앞장 서 나갈 것”이라고 포부를 밝혔다. ☐

이한얼 기자